

한은, 기준금리 5개월째 1.25% 동결

트럼프 당선으로 불확실성 증대... 국내 경기침체·정치적 리스크 가계부채 확대 등 따라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6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끌어내린데 이어 5개월 연속 동결을 결정했다.

앞서 시장에서도 미 대선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지난 9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채권시장 전문가 100명 가운데 99명, 즉 99%가 11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연내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든가 정책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이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동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 부진,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위기 상황

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시장 안팎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며, 전세계 증시가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사실로 여겨졌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묶어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서는 향후 미 연준의 행보에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당선으로 전세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준이 당장 다음달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에 나서지 못

할 것이란 의견과, 견조한 경제지표 흐름에 근거에 예정대로 12월 인상을 단행한 뒤 점진적인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과, 오히려 저금리 기조를 확대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급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가계부채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이끈 주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전날인 10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10월중 국내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7조5000억원 증가한 69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도 한 달간 5

조5000억원 늘어난 5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가계부채는 약 1330조원, 내년 말에는 약 146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반박하고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하는 원론적인 모습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분일 흥국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된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도 한은은 당분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재정정책 확대를 시사했는데 이로 인해 미 장기금리가 인상되면 원화약세를 유발하기 때문에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동결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엄마 선물

한국지엠 군산공장, 여성단체장 10명 맺어줘

한국지엠 주식회사 군산공장은 지난 11일, 결혼이주여성 10명에게 군산시 여성단체장 10명을 친정 엄마로 맺어 주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엠 임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의 후원으로 추진됐으며, 김선홍 한국지엠 군산본부장, 성국선 군산지회장, 나외군 국립 군산대학교 총장, 문동신 군산시장, 다문화가정 가족, 친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행 행사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타국에서 시집온 이주여성들에게 친정엄마를 맨토로 맺어주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친정엄마 맺어주기에는 나의군 군산대학교 총장이 결연 주례를 했으며,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행사비 일체와 양팔에게 예물을 무료 지원했다.

김선홍 한국지엠 군산지역본부장은 "머나먼 이국에서 시집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와 풍습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엄마 맺어주기 행사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며 "맨토인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한 일이나 즐거운 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과 슬픈 일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인생을 꾸려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팔이 된 웬터탄족(베트남·23)씨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게 됐다"며 "이 자리를 만들어준 한국지엠 군산공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한마음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기어S3' 국내 출시

스마트폰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한 번 충전 최대 3~4일간 사용

삼성전자가 시계다운 디자인에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담은 스마트워치 '기어 S3'를 지난 11일 국내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기어 S3 프론티어', '기어 S3 클래식'의 블루투스 제품과 '기어 S3 프론티어' LTE 모델을 국내 통신사를 통해 선보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없이 신제품 '기어 S3'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단독 기능들을 탑재했다. 기어 S3의 내장 스피커로 음악을 듣거나 통화할 수 있다. 내장 메모리에 음악 파일을 담아 재생할 수도 있고 전작과 달리 기어 S3 단독으로 대중교통·골프·등산·게임 등 전용 앱을 바로 내려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기어 S3는 33mm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항상 켜 놓을 수 있는 시계 화면을 갖췄다. 원형 베젤을 돌려 전화를 수신하거나 거절할 수 있게 UX가 개선됐다.

배터리 용량도 전작 250mAh보다 향상된 380mAh로 한 번 충전하면 최대 3~4일간 사용 가능하다. 전량이 5% 미만일 때에는 절전 시계 모드로 설정해 최대 1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내장 GPS·스피커·IP68 등급 방수방진·고도·기압계 등을 탑재해 일상 생활은 물론 레저 활동에도 자유

롭게 즐길 수 있다.

가죽 재질을 사용한 심플한 디자인의 '클래식 레더'와 고급스러운 '엘리제이터 그레이 레더', 실리콘 재질의 스포티한 '액티브 실리콘' 시계줄을 제품에 따라 블랙·블루·블랙·브라운·옐로우·레드·올리브 그린·네이비 블루·카키 그린 등의 색상으로 선보인다.

'기어 S3 프론티어'는 '액티브 실리콘' 블랙 색상 시계줄이, '기어 S3 클래식'은 '클래식 레더' 블랙 색상의 시계줄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추가로 정품 시계줄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WA닷컴이나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엘리제이터 그레이 레더'와 '클래식 레더' 시계줄은 4만4000원에, '액티브 실리콘' 시계줄은 2만9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30일까지 기어 S3를 구입하는 선착순 2만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정품 시계줄을 1만원에 할인 판매하는 '만원의 행복'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12월7일까지 삼성닷컴에 정보를 등록한 후 발급받은 쿠폰으로 정품 시계줄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삼성전자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기어 S3' 출시를 기념해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규모 소비자 체험



삼성전자가 시계다운 디자인에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담은 스마트워치 '기어 S3'를 지난 11일 국내 출시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방문 고객들은 체험존에서 취향과 패션에 적합한 '기어 S3' 모델·시계줄·시계화면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어 S3' 착용샷을 촬영하고 SNS에 공유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어 S3 프론티어'와 '기어 S3 클

래식' 블루투스는 39만9800원으로 책정됐다. '기어 S3 프론티어' LTE 모델은 45만9800원이며 이통사별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기어 S3'는 삼성WA닷컴과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 전자 양판점,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뉴시스

갤노트7 단종 한달 ~~44%~~ 35% ↓

연말까지 '적극 유인'... '아이폰 7'으로 교환 적은 듯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사실상 단종을 선언하고 교환에 나섰으나 그 비율이 약 3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도 삼성 제품으로의 교환이나 아이폰 선택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사용자의 비율이 많은 의미로 해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1일 갤럭시 노트7 제품의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같은 달 13일부터 제품 교환과 환불을 실시해왔다. 교환과 환불은 12월31일까지 마무리된다.

삼성전자는 단종을 선언한 후에도 교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머물자 신제품 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교환을 적극 유도했다.

지난달 말에는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배터리를 6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소비자들의 교환을 유도하면서 차기작을 기대하도록 만들기 위한 교환 신규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갤럭시노트7 고객이 갤럭시S7 또는 갤럭시S7 엣지를 2년 약정 기준으로 교환하면,

내년 출시하는 갤럭시S8 및 갤럭시노트8 구매 시 갤럭시S7 시리즈의 1년 치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11월30일까지 갤럭시 노트7을 교환하는 고객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대체품으로 갤럭시 S7 엣지의 블루 코랄 색상까지 선보였다.

이 같은 방안들이 진행된 끝에 수수료가 35% 대로 진입했으나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고객들은 교환 제품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7 시리즈는 애플 스토어 리서치 앤컨설팅이 발표한 10월 4주차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1~3위를 휩쓸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애플 고객들의 환호일 뿐 갤럭시7 구매자들의 마음을 끌어오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 7 출시 후 대거 몰려갈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갤럭시7 교환율과 아이폰 판매량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지는 않았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변화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 폭이 크게 상승하고 있기에 삼성전자의 갤럭시7 회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